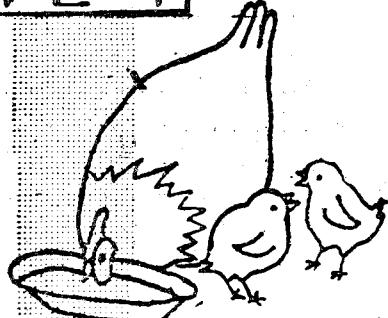


이달의



사양관리

순이 13시간 44분 내외 중순경이 14시간내의 하순경이 14시간 33분 내외가 예측되므로 지금까지 14시간의 고정 절등을 하던 종계장에서 는 일 단은 절등을 중단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고온다습의 각종 세균의 활약과 불쾌지수의 상승으로 계체의 피로와 손실이 우려되니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구된다.

일교차이의 축소 일조시간의 연장 기온의 상승등으로 산란하는데 가장 적당한 조건이 부여될 것 같다. 그러나 중순 이후부터는 점차로 기온이 상승되게 되므로 음수량의 과다로 계사가 과습하게 됨을 방지해야 하며 더위에 대한 대책도 미리 강구해야 되리라본다. 이 달의 일조시간은 초

이 새어 들어와서 온통 계사내를 수영장으로 변하게 하는데 이런 상태 하에서 파연 계체의 전강판리를 논할 수가 있을까? ⑤계사외부의 배수구는 깊이 파놓을 것, 즉 배수가 수시로 칠되어 물이 정체되지 않게 하므로 파리, 모기, 구배기, 지렁이 등의 서식처를 방지할 수가 있다. ⑥급수기 주위의 관리를 잘 할 것, 급수기청소를 수시로 안하는 관계로 물이 고여 흙이 썩으므로 위생상 불결하게 된다. 또는 급수기와의 사이에 연결해 놓은 토수속에 사료찌꺼기 기타 오물들이 썩어서 지렁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관리부터 잘 해야 되겠다. ⑦계분은 수시로 수거시키고 석회를 산포한 후 반드시 소독할 것. ⑧자릿깃의 불량, 환기 불량, 밀사, 실내저온에 대한 대책을 연구할 것, ⑨급수시에 바닥에 물을 흘리지 말 것. 이상의 몇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폐계의 검출

1. 일반관리

① 환경개선과 과습방지

기온의 상승과 음수량의 증가는 서로 병행되므로 계사내의 과습을 방지하므로서 각종 전염세균과 기생충류의 서식을 미연에 예방해야 된다. 음수량은 보통 사료량의 2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0°C 에서는 1~1.7배 10°C 에서는 1.7~2배 20°C 에서는 2~2.5배의 음수량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이로 인한 계사의 과습과 우천시의 과습이 또한 염려된다. 그러므로 계사내에 항상 건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보자. ⑦계사 내부는 외부보다 높게 시설할 것.

간혹 보면 계사외부 보다 계사내부가 낮기 때문에 장마철이 되면 물

③ 부로일러의 사용 분리

균일한 육성과 사료효율의 개선 전달에 지적한 계군의 사회성을 고려하여 미소한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보겠다.

④ 단열제

계사기온의 상승과 더불어 미리 방서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단열제를 구비하여야겠다. 이때 단열제는 1.5~1.8cm 내외로 알려져 있으며 야외 사육장에 천막등을 이용

5
월

정 보 남
<한국 가금협회 겸정소>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을가?

⑤ 산란증진책

위에서 지적한 부조리를 해결하면서 텁에 대한 애정, 규칙적 급이, 절등시간업수, 내외부 기생충의 예방영양보충, 질병 계체의 능력, 기온 환기, 습도의 조절을 철저히 한다면 산란율의 향상은 기정사실이 될 것이다.

2. 사료제품관리

각 사료공장에서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배합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책상에서의 배합계획에 못지 않게 현장에서의 실천과정이 문제라고 보겠다. 즉 원료<우수수, 어분, 채종박, 대두박, 소백분, 빵분, 라면, 일자박, 호마박, 아마박, 면실박, 전분박, 소백피, 탈지강, 호분, 쾌분, 골분, 쇠염, 육골분, 옥태박, 연매, 사료첨가제 기타> 구입시 검수원은 형식적인 검수보다 철저한 검수를 해야되며 일단 검수에 통과한 원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분쇄나 배합시의 정량배합과 완제품의 관리, 아프터서비스의 결함을 없이하고, 더욱기 현장 근무자에게는 되도록 이면 자극을 피해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특히 여름철이 다아울수록 부패로 인한 식중독이 다년가 곱팡이성으로 인한 폐렴등의 발생이 많을 것으로 보여 자체내의 완벽한 관리는 물론 양계가에게 보다 철저한 지도를 계을리 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사료운반차량의 책임자는 일반 양계가와 사료공장간의 교량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들의 일거일동에 대해 한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사전의 교육도 중요하지 않

3. 질병관리

고온다습시의 각종 세균과 기생충의 활동 불쾌지수의 상승으로 인한 식육감퇴 부패 또는 오염사료급여시의 중독등으로 계체는 허약해지기 쉽다. 그러므로 보다 철저한 소독<소독저설치, 계사의 주기적소독, 각종 기구의 소독, 폐계 또는 계사의 위생처리>이 요구된다

① 류코싸이토준병

일명 로이코지도손병이라고도 불리우는데 한국 일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발생된다. 매개체는 보통 닭거꼬기에 의하게 되므로 환경정화에 치중이 필요하다. 증상을 보면 초생추에서 각혈, 녹색변, 피하출혈로 3~20%의 폐사율을 나타낸다. 중추이상은 발육지연, 산란정지, 조기환우, 벼슬의 창백, 녹색의 물은 변 등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예방치료는 살파제, 후라조리돈, 피리메타민 등이 사용된다.

② 전염성하리

초산제와 케지사육제에 다발하는 테 하리와 동시에 산란이 정지되고 육수는 검붉은 색을 나타내고 있다 병제는 3~7일에 1~3% 정도 폐사하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산란 1개월 전에는 반드시 일반접종을 모두 완료한 후 일반 사양관리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③ 내외부기생충

내부기생충...정기적인 구충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평시에도 계체상태에 주의관찰한다.
외부기생충...더더티, 바이치치, 네구본등의 저독유기인제로 살포하거나 황산니코틴을 희에 빌라 화기로 사멸시키는 방법과

보래에 유황가루를 뿌려 사육시키므로서 구충시킬 수가 있다.

④ 식체

보통 육추초기에 다발하는데 이는 매일 이론 새벽 첫모이 급여전에 발견이 용이하다. 이는 온도 습도, 환기의 불균형과 바닥의 냉기로 인한 복부가 차거나 사료배합의 불량 불규칙한 급이 급수량의 부족, 이물질의 복용시 근위운동의 장애, 기타 질병시 등으로 나타난다. 증상은 소낭의 확장, 하리, 피모역립, 월기부족, 항문주위의 불결 등으로 외부적인 관찰이 용이하다. 그러므로 육추의 기본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인력관리

타인의 권한 침해

서로간에는 말은 바 책임이 있는 테 고의적이던 아니던간에 하급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수가 많은데 결국 하급자는 자기의 할일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의 권한에까지 신경을 쓰게된다. 부장이나 과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종업원의 일을 한다고 능률이 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종업원의 위치에서 부장이나 과장의 권한에 신경을 쓴다고 운영이 효과적으로 잘되지는 않을 것이다. 체제상의 부조리가 회사의 발전과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리라.

